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타우 십자가와 수도복

대부분의 가정에서 처럼, 형제회내에서도 자주 튀어나오는 특정한 논제들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제들 중에는 단순히 대다수의 의견이나 아니냐의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 전통이나 아니냐, 그리고 그 전통을 바꿔야 하는가 또는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제들은 민법이나 교회법의 범주에 속한 것 들도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수도복을 착용"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의 논제는 후자의 범주에 속하겠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새 회원분들로부터 사망했을 때 프란치스코 수도복을 입고 묻히고 싶어 하는 가족들을 위해 수도복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수도복을 입습니까?"라고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주요 문서에 오로지 근거해서 대답을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현재 문서인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2000) 제 43 조에 의하면 수도복을 입지 않고, 대신 "특별한 표지나 다른 프란치스칸의 상징들"을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형제회는 "특별한 표지와 상징물로 타우 십자가로 할것이나 또는 다른 상징물로 할 것이냐는 각 국가 형제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국가형제회는 규정 제 16 조에 "우리의 특별한 프란치스칸의 표지로는 타우 십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07 년 회헌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회칙과 회헌의 유권 해석은 성좌에 속한 권한이다. 그러나, 회헌을 형제회의 여러 단위와 각급 형제회의 조화있게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해석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총회에 속한다. 또한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명선언을 재속 프란치스코회 의장단의 소관이다. 이 해명선언은 차기 총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에 해당하는 한 예로 2011년 10월 29일 총회 서간에서 발췌된 아래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복”을 착용하는 것은 이미 제정된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과 회헌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총회에서 재속회 회원들의 특별한 표지는 “타우 십자가나 다른 프란치스코의 상징들” (GGCC 43)이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원 표지”로는 작고 단순한 (예로, 성 다미아노 십자가) 배지이다. 다만, 재속 프란치스코 국가형제회에서 어떤 상징물을 국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일정한 (유니폼)” 표지로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총회의 결정은 이에 관한 이전의 결정들을 대신하며, 다음의 총회까지 효력이 있다.’

2011년 10월 29일, 상 파울로에서

현 국가 형제회 회장 Tibor Kauser, OFS 께서 2018년 6월 24일에 보낸 서간에 “수도복” 착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도복이라 하는 외관상의 의복을 입지 않는다. 대신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눈에 띄는 표징”을 입는다. “눈에 띄는 표징”으로는 친절,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봉사, 단순한 생활 양식, 성사 생활, 수도회에 헌신 (우리의 회칙, 회헌, 국가형제회 회헌과 규정을 배우고, 존경하고, 회칙을 살아가려는 약속), 그리고 개인이 속한 형제회에 헌신(출석, 참여 그리고 봉사 –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 제 22 조-25 조, 회헌 제 30 조, 제 53 조 3 항) 으로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 4 조, 7 조; 재속프란치스코 회헌 제 8 조, 제 9 조)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은,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수도복 같은 특별한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회개의 여정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표징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매일 타우 십자가를 착용하며,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함께 묻힐 것입니다.

추신: 최근에 타우 십자가를 착용할 때 드리는 특별한 기도문이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국가 형제회에는 특별한 기도문이 없습니다만, 국가 형제회 부회장이시고 전 양성 위원회원이셨던 Diane Menditto, OFS 께서 아래의 기도문을 제안하셨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도 매일 타우 십자가를 착용할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으십니까?